

축구 손상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수상 기전

음지외과대학 노원을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최 남 흥

서 론

축구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흔히 발생하며, 지금까지 4가지 정도의 손상 기전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구에 의해 발생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손상의 여러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축구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 92명 중 손상 기전을 정확히 기억하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27세로, 남자 47명, 여자 3명이었다. 아마추어 및 프로 축구 선수는 15명이었고, 35명은 비선수였다. 수상 기전은 전화나 의무기록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수상 기전은 접촉성 손상이 17명, 비 접촉성 손상이 33명 이었고, 41명의 환자가 손상 당시 발이 지면에 접촉을 하였고, 9명은 지면에 접촉하지 않았다.

접촉성 손상에서 17명 중 9명에서 슬관절에 외반력, 5명에서 내반력이 가해졌고, 11명의 환자가 손상 당시 발이 지면에 접촉을 하였고, 6명은 발이 지면에 접촉하지 않았다. 발이 지면에 접촉된 상태에서 대퇴부의 회전에 의한 손상은 3명이 있었고, 과신전 손상은 1명이었고, 감속 손상은 없었다.

비접촉성 손상에서 33명 중 30명의 환자가 손상 당시 발이 지면에 접촉을 하였고, 3명은 발이 지면에 접촉하지 않았다. 30명 중 대퇴부의 회전에 의한 손상은 16명이 있었고, 6명에서 슬관절에 외반력, 5명에서 내반력이 가해졌고, 과신전 손상은 5명이었고, 감속 손상은 2명 이었다. 발이 지면에 접촉하지 않은 3명의 환자들은 킥을 할 때 손상을 받았다.

결 론

축구 선수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대부분(66%) 비접촉성이 원인이며, 발이 지면에 접촉되면서 상체가 회전되면서 발생했다. 접촉성인 경우 대부분(53%) 외측에서의 태클에 의한 외반력이 원인이었다. 비접촉성인 경우 발이 지면에 접촉하지 않고, 킥하는 순간에 손상 받는 기전은 보고되지 않은 기전이었다. 운동전 적절한 준비운동으로 유연성을 강화하고, 슬관절 근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축구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